

# 단풍 고운 향교·사색 깊은 문학공원... 광양으로의 초대

### 시, 반일·당일·1박 2일 구성 '가을에 여행하기 좋은 코스' 제안 만추 백운산 어치계곡 생태탐방로·배알도 섬 정원에서 사색 등

광양시가 인문의 향기와 사색 즐기기에 좋은 광양여행코스를 제안하고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광양시는 광양향교, 이균영 문학공원, 어치계곡 생태탐방로 등 깊어가는 가을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반일코스, 당일코스, 1박 2일 코스를 구성했다.

반일코스인 '광양에서 한나절'은 전남도립미술관 & 광양예술창고-광양불고기 특화거리~광양향교-이균영 문학공원을 잇는 인문예술여행코스다.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전남도립미술관 특별기획전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관람객으로 붐빈다. '미제레레' 등 루오의 대표작 200여 점에 이어 그의 영향을 받은 이종섭, 구본웅 등 한국 근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연계 전시대 감동과 의미를 더한다.

조선시대 교육과 문화의 중심 공간이었던 광양향교는 은행잎이 곱게 물드는 11월이 가장 아름답다. 외삼문인 풍화루를 통과하면 단정하게 배치된 대성전, 명륜당 등이 고즈넉하게 방문객을 반겨 마음이 고요해진다.

광양향교를 왼쪽으로 돌아 오르면 이상문학상과 단재학술상을 수상하며 문단과 학계의 주목

을 한 몸에 받았던 소설가이자 사학자인 이균영 문학공원을 만날 수 있다.

1951년 광양읍 우산리에서 태어난 이균영은 광양중학교, 경북고등학교, 한양대 사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동덕여대 교수를 역임했다. 이균영 문학공원에는 이상문학상 수상작 '어두운 기억의 저편'을 형상화한 조형물과 문학비 등이 있어 그의 문학적 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다.

광양에서 오롯이 하루를 보내는 당일코스는 유당공원-전남도립미술관 & 광양예술창고 ~광양불고기 특화거리-구룡산전망대-이순신대교-배알도 섬 정원-망덕포구(운동주 유교 보존 정병육 가옥 & 시 정원)를 투어한다.

광양 원도심에 자리 잡은 유당공원은 1547년, 광양현감 박세후가 읍성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한 보안림으로 오랜 역사를 지켜온 자연 정원이자 기억의 공간이다.

500년의 나이테와 아름다운 수형을 자랑하며 천연기념물 제235호 '광양읍수(光陽邑叢)'와 이팝나무로 보호되고 있는 노거수들은 낭만적인 가을 풍경을 선사한다.

광양의 하룻밤을 꾸꾸는 1박 2일 '광양에서 별하는 밤' 코스는 백운산자연휴양림부터 망덕포구



광양시가 광양향교, 이균영 문학공원, 어치계곡 생태탐방로 등 깊어가는 가을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광양여행코스를 구성해 손님 맞이에 나섰다.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 조르주 루오'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시 제공>

· 운동주 유교를 보존하고 있는 정병육 가옥까지 광양의 자연과 문화를 두루 여행하고 아름다운 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 코스다.

첫날은 전남도립미술관 & 광양예술창고-광양불고기 특화거리-광양향교-이균영 문학공원-백운산자연휴양림-구룡산전망대-이순신대교-해오름육교 코스다.

둘째 날은 김 시식자-배알도 섬 정원-망덕포구

~즐거움 미식-어치계곡 생태탐방로에서 느긋하게 1박 2일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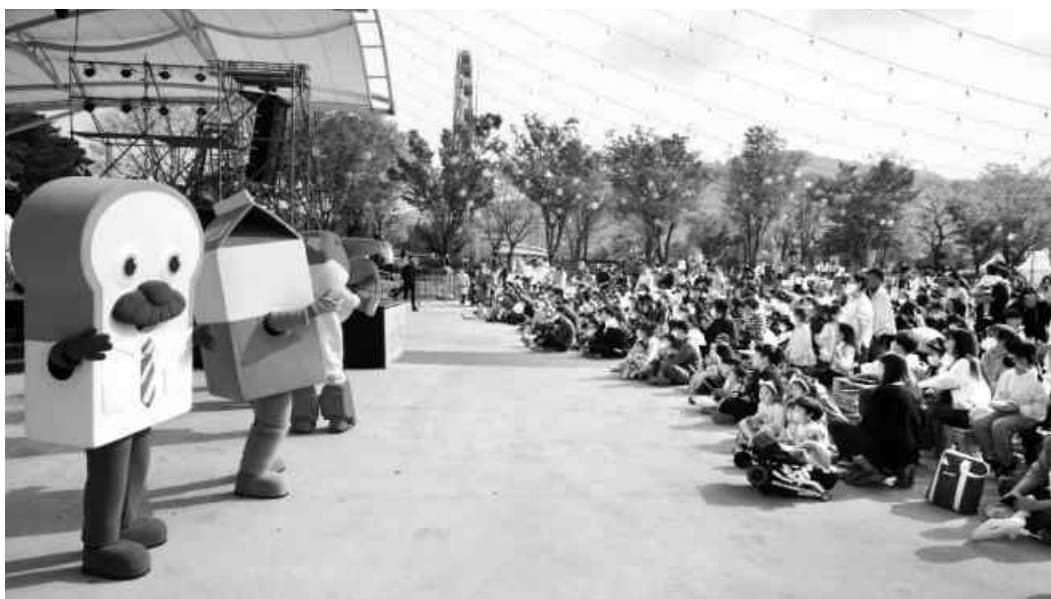
어치계곡 생태탐방로는 진삼면 내회교(橋)에서 구시곶까지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한 1.25km 탐방로로, 내밀한 자연을 폐부 깊숙이 호흡할 수 있는 힐링공간이다.

정구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가을의 절정인 11월 광양여행코스는 울긋불긋 물드는 가을 풍광과

인문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향교, 유당공원 등 광양의 색채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고즈넉한 역사 공간들과 전남도립미술관의 수준 높은 전시를 찾아 고요한 사색과 함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5만명 함께 즐긴 '곡성 심청 어린이 대축제'

### 섬진강기차마을 일대서 열려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가 가을동안 5만여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 곡성군은 '10월의 어린이날'을 위해 기획한 '심청 어린이 대축제'에 5만2717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는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펼쳐졌다. 방문객들은 장난감 대 놀이터를 통해 장난감과 텐트, 돛자리를 빌려 휴식과 체험을 즐겼으며 세계공인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큐브 전국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28일에는 중앙무대에 펍수가 깜짝 출연해 어린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돋보였다. 28일 곡성을 9개 어린이집 원생과 선생님으로 구성된 250여 명의 퍼레이드단이 한복, 캐릭터 등 코스튬 복장을 하고 거리 퍼레이드를 펼쳤다. 또 주민들만의 코너인 '북편 가뭄제'에서는 지역민들이 노래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축제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무대 공연이 대부분 취소됐으나 체험행사는 예정대로 운영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준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취소됐지만, 관람객들이 통제에 협조해 마지막 일정을 무사히 치렀다"며 "앞으로도 지역 축제,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 김순호 구례군수 "타지 구례학생 생활비 지원"

###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 추진... 이달말까지 신청자 접수

구례군이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생활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최근 열린 성과장 정책토론회를 통해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 꼼꼼한 현안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타 지역에서 공부하는 구례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구례군이 다른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주거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의 주소 이전을 예방하고 어

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애환 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하반기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30일까지 1개월간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방문·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지원 기준일로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례군이여야 하며,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고향의 보금자리 사업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면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활력이 넘치는 구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광양시 내년 국비 확보전... 국회 찾아 설명회

###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등 3428억원 건의

광양시가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양시는 '2023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 국회를 방문해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순선 광양시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과 호남권 국회의원에 게 국비 3428억 원의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협력을 요청한 사업은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3118억원 ▲광양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60억원 ▲전남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센터' 설립 250억원 등이다.

이들 현안사업은 광양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하고,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관련 상임위원장을 만나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시는 2023년 국고 건의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10월~올해 3월 3차례 신규 발굴보고회를 개최해 국비 건의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또 매월 국비 확보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보완해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상대로 전 직원이 정부정책방향에 맞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 발표한 정부 예산(안) 반영 확보액은 약 5400억 원이다.

주요 신규사업은 ▲소수시범도시 조성사업 5억

원(총 400억원) ▲광양 금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원(총 374억원) ▲광양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정비사업 5억원(총 80억원) ▲광양읍 동서천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4억 원(총 80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원(총 100억 원)이다.

시는 이번엔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남 도비(전환사업)까지 확정되면 내년 국도비 확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류현철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은 "국도비 사업은 중앙재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순천시민 소통창구 3114 온누리콜센터

### 개소 1년 16만1928건 상담

지난해 11월 1일 개소한 '순천시 3114 온누리콜센터'가 시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에 따르면 온누리콜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성과 보고회를 갖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순천시 민원 행정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콜센터 우수 상담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온누리콜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총 16만 1928건의 민원 상담을 하는 원스톱(One-Stop)전화의 처리 비율은 개소 당시 46.5%였으나 현재



순천시 3114 온누리콜센터가 개소 1년을 맞아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순천시 제공>

63.2%로 상승했다. 전화 돌림, 반복 설명, 무응답, 불친절 등 시민들의 겪는 민원전화 불만 사항 해소에 온누리콜센터의 역할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상담 분야 비율은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27.5%, 일반 행정 분야 16.8%, 지방세 관련이 15.4% 순이었다. 올해 초 코로나19 관련 문의 사항이 급증해 지난 1월에는 하루 1130건이 넘는 민원 상담을 처리하기도 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여수시, 겨울 한파 등 자연재난 사전 대비

### 19개 협업부서 TF 구성

여수시가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사전 대비에 나선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13개 기능 19개 협업부서로 T/F팀을 구성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 우려시설 안전관리 강화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겨울철 기상특보 발생 시 단계별 상황대응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제설장비와 자재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중장비의 경우 여수시 건설기계연합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동원장비로 지정하고, 응급복구 상황 발생 시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근로자 등 한파위험 노출자에 대한 예방대책도 마련한다.

수도시설 동파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한파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나서는 한편,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방풍막 등 각종 한파 저감시설과 한파 쉼터 400여 개소에 대한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최영철 여수시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겨울철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만큼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14주년 5일 조정래 작가와 북콘서트

보성군이 오는 5일 태백산맥문학관 개관 14주년을 맞아 '조정래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보성군은 '이태원참사 국가예도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태백산맥 전국 백일장 대회 시상식과 공연행사는 취소하고 '북콘서트'만 추진한다. 북콘서트에서는 소설 태백산맥 전권(10권)을 필사해 기증한 7명의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후 조정래 작가와 서울대학교 권영민 명예교수가 대담형식으로 진행된다.

진행은 조선대학교 이동순 교수가 맡았으며, '태백산맥의 세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독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보성=김은백 기자 kyb@